

관음성지 복원하고 동안거 백일기도

선운사, 관음전·극락전 복원 낙성법회 370년만에 옛모습 찾아 지역민에 회향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 관음전에 새 단장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관음전(觀音殿)에 맞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새로 모셨다. 붉은 단풍과 국화향기가 어우러지는 고창 선운사. 11월 14일 5000여 불자가 관음전 낙성법회와 관세음보살 점안식에 동참했다.

대웅보전의 뒷편 동쪽에 위치했던 관음전은 오랜 세월 풍상 속에 심하게 훼손됐다. 내부에는 보물 제279호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최근에 조성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탱화가 있었다. 주존불(主尊佛)이 지장보살이라면 전각의 이름이 지장전(地藏殿) 또는 명부전(冥府殿)이 맞는데도 특이하게 관음전에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었다.

선운사는 관음전을 해체 보수하면서 보물로 지정된 금동지장보살은 성보박물관으로 이원했다. 대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새로 조성해 봉안했다. 드디어 현판에 맞는 불보

살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극락교 준공식도 진행됐다. 극락교는 1977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통사찰방식에 맞지 않아 사찰 풍경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심한 부식과 유리를 감당하지 못해 자주 범람하는 등 위험에 처해있었다. 이에 길이 22m, 폭 6m로 확장하고 전통방식의 쌍홍교(쌍부지개 모양의 다리) 형태로 지어졌다.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했던 군산 관음사 재곤 스님, 익산 대웅화사 혜산 스님이 자리했다. 그 밖에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낙산사 회주 정년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스님과 김춘진 국회의원, 이강수 고창군수, 이만우 고창군의장과 지역불자 낙산사 성지순례단 등도 함께했다.

범만 스님은 "370여 년 만에 관음성지 선운사로 복원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많은 불자들의 수회 동참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불사가 이루어졌다"며 "선운사 사부대중은 수행과 기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복지와



고창 선운사는 11월 14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전 및 극락교 복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문화, 또 생명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새로 복원한 관음전에 서 동안거(11월 20일~2011년 2월 27일) 백일기도를 봉행한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남원 신행단체 연합회 윤평호 회장 "빛 값은 심부름꾼"



남원지역에는 크게 남원불교대학 동문회, 산악회, 청년회, 포교사회, 불인회, 보현회, 심우회 등의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남원신행단체연합회 윤평호 회장(법명 지선, 68세, 사진)을 남원 선원사에서 만났다.

그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한사코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남원시암연합회와 남원 신행단체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남원 시내를 관통하는 요천 한가운데 수중무대를 설치했다. 무대에는 대형 탐장염물을 설치하고, 연등을 달아 지역 대표 축재인 춘향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윤 회장은 "진주 유등축제를 참관해 벤치마킹하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총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평호 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지역축재인 춘향제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연계하는 복안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며 "구례, 곡성, 임실, 장수 등 인근지역과도 연계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에 남원불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각 사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기 성지순례도 연합 성지순례로 추진해 남원지역의 불자들이 모두 함께 하는 성지순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그를 남원 지역의 부루나 촌자로 만든 것일까?

윤평호 회장은 40년 전 우연히 전주에서 불일을 보고 남원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실상사 스님을 만났다. 스님과 이력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이 반짝 뜨이는 경험을 했다.

"정원 스님이셨어요. 범명이. 그 날의 일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스님 덕분에 불법에 의지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정원 스님이 저를 참말로 이끄신 거죠."

그 후 그는 실상사를 거쳐 대복사에 적을 두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했다. 평소 "남원불교대학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 불교도 발전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윤 회장은 남원불교대학 공동집행위원장의 소임을 맡으며 학생의 감소로 위기를 맞은 남원불교대학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학비를 감면하고 20기 동안 배출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들이 원하는 불교에 대해서 들었다. 또 불교가 결코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리며 종횡무진하고 있다.

40여 년 쌓여가는 신심은 늘 수행하는 생활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27번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 냉수로 샤워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2년 전부터는 대복사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스님들을 제대로 의호하지 못해 늘 빛을 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만 늘어가고, 지혜는 쌓일수록 겸손해진다"는 생활신조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지극 정성으로 서원(誓願)을 세워 밝힌 작은 등불 하나가 장자가 매일 밝히는 등불보다 못지않다는 말처럼 작은 도시 남원에서 밝히는 서원 가득한 작은 등불의 힘을 기대한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부산사랑 화쟁에 달렸다

화쟁문화 시민포럼(회장 김재운) 창립 1주년 기념 행사가 11월 1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화쟁문화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문화부문에 통도사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과 실업 부문에 류진수 대흥 R&T회장(前 부산불교방송사장)이 선정됐다.

2009년에 창립했다. 올해 5월에는 '국민화합 대강연회' '부산 시장 후보 초청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화합의 중요성과 부산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와 울산 등의 모인까지 발족하며 다른 지역까지 화쟁의 실질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화쟁문화 시민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성파 스님이 화쟁문화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화쟁문화 시민포럼은 원효 스님의 화쟁철학을 근본이념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화합을 이끌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어린이 생태학교 '나무숲' 설립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나무숲 대표 무등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는 11월 13일 자비신학회 교육장에서 '2010정기총회 및 회원 한마당'을 개최하고, 부설 어린이청소년 생태학교 '나무숲'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천홍사 주지 무등 스님을 나무숲 대표 및 당연직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총회에는 현교 스님(불교환경연대 본부 상임대표), 범일 스님,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행범 스님(선덕사 주지), 무등 스님(천홍사 주지)을 비롯해 지용현 회장(광주전남신도회) 등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정 스님 <禪墨> 출간

법정 스님의 글씨와 그림이 책으로 엮여졌다. '역류집'은 평소 지인들에게 보내셨던 계절, 편지, 묵적, 원고, 도자기, 편액 등을 통해 일상 속 스님의 모습과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이웃과

교감하는 스님의 면목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엮은 현장 스님은 "스님께서 붓장난(법정스님 표현)으로 남기신 소중한 유묵들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벗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에는 이해인 수녀, 현목 스님(송광사), 현장 스님, 덕현 스님(길상사), 정찬주 작가, 피상순 박사, 도애가 김기철, 고현 교수, 윤청광 씨와 묵담을 나누는 작품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200여점이 넘게 수록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산스님의 영험한 맹귀부목 符

기혈수비법으로 잘 알려진 남산스님 관세음보살님과 감응

영험한 신통력을 가진 '맹귀부목'은 남산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감응을 받아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이런분들은 남산스님의 맹귀부목을 소장하십시오.

- 부동산
- 자영업
- 취업
- 승진
- 시험
- 혼사
- 건강 등의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분들

남산스님 영험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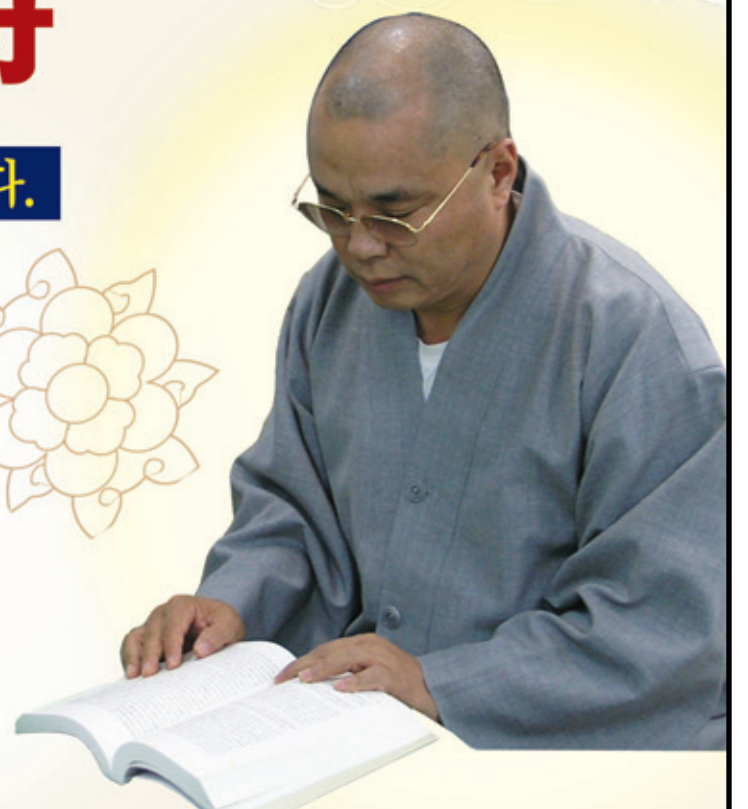
파스 한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어느 곳이든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달려가 무료로 치료해 준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겪고 있는 2급시각장애의 고통을 오로지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삶의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스님께서는 잠선기도 중 관세음보살님과 감응하게 되면서 다문화 처녀총각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어렵고 힘든 불자들의 길흉화복을 알려주어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등 종전의 대체의학 보시와는 달리 영적세계와 불자들에게 이어주는 영험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 맹귀부목을 받으신 분에게는 남산스님께서 직접 무보시로 감명을 해드립니다.
- *삼원 오행상 상생이 되지 않는 이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 *자신의 일간과 조화가 이루어진 이름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무보시 감명하실 분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생시 :

맹귀부목(盲龜浮木)이란?

행운목인 대추나무에 맹귀부목과 광명진언을 새기고 뒷면에 황금거북을 아로새겨 놓아 맹귀부목인장의 영험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맹귀부목은 하는 일이 좀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뜻밖의 행운을 만나 사업에 성공하고, 취업이나 진학의 뜻을 이루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맹귀부목도장을 소장하신 분들에게는 81영동수 비법으로 스님께서 직접 이름을 무보시로 감명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남산스님 약력
 - 북산대학교 석좌교수
 - 몽골 칭기스칸대학교 교수
 - 중국 요녕성 중의약대학교 비인학과 교수
 - 부산 부광명인물지회 지도법사

- 남산스님 저서
 - (남산스님의 기혈수 비법)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남산스님의 기적의 파스요법) (남산스님의 태이밍요법) (진주를 확고하고 군살 꼭 빼고)와 다수

- 언론사 방영
 -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 MBC 모닝와이드, TV 아름다운 가게
 - 마산 MBC 매거진 세상
 - MBC 휴먼TV 공감
 - BTN 불교방송 우리들 우리스님
 - SBS 호기심 천국 다수

남산스님 자비사 080-714-3030